

하반기 임기 만료 광주 공기업·출연기관 임원 6명 인사 촉각

도시철도사장·신보 이사장 후임 누구?

광주시가 민선 5기 2년차를 맞아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마련, 7~8월 중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올 하반기 중 임원 6명이 임기를 마칠 예정이어서 후속 인사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임원은 모두 광주시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대부분의 공기업 임원자리는 광주시 고위 공무원들이 명예퇴직 등의 형식을 거쳐 임기 이전에 공직을 사퇴한 뒤 옮겨갔다.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공무원 출신이 선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광주시 출연기관 중에서도 이달 말 신용보증재단 김재욱 이사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시작으로 8월 31일에는 정보문화진흥원 이상길 원장 그리고 오는 12월 8일에는 광주영어방송 김형주 본부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후임 이사장 공모절차가 진행중이며, 지난달 30일 후보접수를 마무리한 결과 광주

은행 출신 3명, 외환은행 출신 1명을 비롯해 모두 8명이 응모서류를 접수한 상태다. 광주시는 이달 중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원이 대거 교체될 예정”이라며 “강운태 광주시장의 시정 목표인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과 비전, 그리고 시민에 대한 헌신이 새로 선임될 임원들의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

‘2011 대한민국 과학기술연차대회’ 개막식이 5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과학기술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준규 사퇴로 ‘2단계 개각설’ 술술

이달 검찰총장·법무장관 등 교체 가능성

다음달 총선 출마 일부 장·차관 바뀔 수도

김준규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 여파로 정치 하반기 ‘2단계 소폭 개각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7월 중순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함께 법무장관과 민정수석도 교체하고 8월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장·차관을 바꾸는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5일 “총선에 나갈 장·차관이 연말까지 유임되거나 내년도 있지만, 내각도 하반기에 총선 출마자를 정리할 수 있다”며 “7월 검찰총장 인선 때 한꺼번에 개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 인사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철학과도 부합해 보인다. 우선 차기 검찰총장의 경우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오는 20일 전후 인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와 맞물려 이귀남 법무장관과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사정 라인 3인방’을 일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장관은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이동설이 유력하게 나오는 가운데 민정 수석 후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장관도 바뀔 것이라 설이 있지만 유임될 것이라 전망도 만만치 않다. 8월 개각설에 거론되는 부처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현직 의원들이 장관으로 있는 특임,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부이다. 의원 출신인 행정안전 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 장관은 현재 장관직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일부 차관도 교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오 특임 장관이 교체될 경우 최측근인 김해진 특임차관도 거취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이고, 장관이 바뀌는 부처에서 차관이 장관으로 승진할 경우 차관 인사도 수반될 때문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개각과 관련해 시기나 폭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투자고용국·대변인 신설

조직개편안 마련 ... 소통·정무기능 보강

광주시가 민선 5기 2년차를 맞아 투자고용국을 신설하고 시민교통국과 건설방재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특히 대변인직을 신설해 소통 및 정무기능을 보강하기로 했으며, 각종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약심사과의 소속을 감사관실로 변경하기로 했다.

선임)이 맡고 있는 일자리창출지원관과 기업유치지원관, 국제협력관 등 3개 조직을 하나로 통합해 투자고용국(3급)을 신설하고, 기존의 경제산업정책실은 경제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자고용국 신설은 국내외 투자 및 고용창출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기존 경제산업정책실 내 투자·고용 관련 일부 부서도 투자고용국

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시민교통국과 건설방재국도 업무의 연관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2개 기구를 건설교통국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또, 공사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의 자치행정국 소속이었던 계약심사과를 일삼감사팀과 계약감사팀으로 분리, 감사관실로 소속을 변경하기로 했으며 자치행정국 소속 시민소통과도 자치행정과와 시민소통과로 나누기로 했다.

6급 1본부 체제가 2실 7급 1본부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대외 홍보 및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시민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정무특별보좌관실과 공보관실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특히 외부인사를 영입해 별도의 대변인을 신설,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정무특별처법 계약직 가급 대우를 받게 될 대변인은 시정 방침과 목표를 시민들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고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빠르게 이번 주 중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조직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

‘광주 행복지수’ 논란

이용섭의원 “현대경제연구원 ... 정치 의도 없어”

광주시 “희한한 보도자료... 가치 또한 의문” 반박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 을) 의원이 5일 ‘광주 1년간 행복지수가 하락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광주시가 ‘책임 있는 국회의원 모습에 아쉽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의원 측은 현대경제연구수가 분석한 자료를 인용했다고 밝혔지만, 광주시 안팎에서는 강운태 광주시장의 시정수치가 ‘행복한 창조도시’인 점과 최근 이 의원의 지역구 내 수만 수명장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냐는 의구심마저 보이고 있다.

경제적 행복지수는 지난 2010년 상반기 42.2점에서 올해 상반기 39.4점으로 2.8점 하락한 반면 광주시는 같은 기간 동안 일자리와 소득 불안정, 경제적 열등감, 고물가로 인해 ‘경제적 행복지수’가 44.3점에서 37.6점으로 6.7점이나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광주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대전과 경남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했으며,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12위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라며 “특히 경제적 평등지수와 경제적 불안지수가 각각 23.5와 16.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광주시의 행복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물가안정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즉각 반박 자

료를 내고 “한 민간기구의 자료를 인용, 지난 1년 광주의 행복지수가 크게 하락했다는 이용섭 의원 보도 자료는 강 건너 불 구경 식 문제제기로서 과연 광주지역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아쉽다”며 “매우 희한한 보도자료이자 그 가치 또한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광주시는 “이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의 경제적 발전가능성이 전국에서 1위인 점을 감안하여 광주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 측은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자료를 인용했을 뿐 다른 것(정치적 의도)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하철 무임손실 55억 지원을”

광주시, 정부에 건의

광주시는 5일, 노인·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승에 따른 무임손실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했다. 광주시의 이 같은 방침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운임 전액 감면조치가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인데도 무임승승에 따른 무임손실액은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일반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지난 2009년에만 해도 1044억원의 무임승승 손실액을 보전해 준 반면, 도시철도는 국비지원이 전혀 없이 자체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임승차는 지

자체가 정한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거 교통복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데도 막대한 운임손실을 지자체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며 “또 다른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와 협력해 정부와 국회 등에 관련 법령 개정과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광주도시철도공사의 도시철도 무임승객은 547만명으로 총 이용객 1744만명의 3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임승승에 따른 운임손실액이 55억원에 이르고 있어 도시철도 운영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

비세는 아파트옥상·슬라브주택·빌라·공장의 **희소식**
국내최초 특허 제10-0986204호 슬라브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슬라브지붕누수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로가 최소 30%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이상 간다.
5. 장독대, 빨래건조대로도 사용할수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것보다 3~4배 더 잘마른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 완벽한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리도 다시 뚫어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공정직영 / 완벽한시공 / 확실한A/S 보장, 전국 최다 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단 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방수시스템!
한농길라강판지붕개량 061) 335-8842, 010-4024-4005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택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런(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h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 드립니다.

태양광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주택 사업이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공공민적 이용을 확대하여 관련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력면역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은 전기는 한전으로 역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 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료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기준상구요금(사용전력량 kWh)	설치시 청구요금	월 갈 요금
8만 원 (약 45kWh/일)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 원 (약 40kWh/일)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 원 (약 500kWh/일)	약 8,900원	약 111,100원
15만 원 (약 540kWh/일)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 원 (약 610kWh/일)	약 30,800원	약 168,400원
25만 원 (약 680kWh/일)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 원 (약 740kWh/일)	약 72,000원	약 228,000원

*기준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 062-512-1180 / H.P 011-659-7001